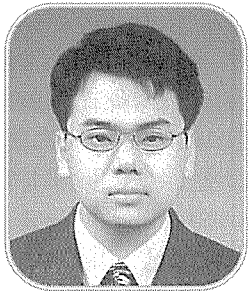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16)

-또 하나의 비즈니스 상표/도메인 DOMAIN-



류지창
(데이콤 천리안사업본부)

INTER ET

지난 98년 7월 미국의 컴팩사가 운영하는 검색서비스인 알타비스타는 잭 마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http://www.altavista.com/>이라는 주소를 무려 335만불을 주고 인수하였다.

이는 잭 마살이라는 사람이 알타비스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컴팩보다 1년 먼저 [altavista.com](http://www.altavista.com/)이라는 주소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타비스타는 어쩔 수 없이 <http://altavista.digital.com/>이라는 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거래로 컴팩이 [altavista.com](http://www.altavista.com/)을 소유하게 되었고, 잭 마살은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은 이제 상표와 맞먹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를 벌이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것이 입력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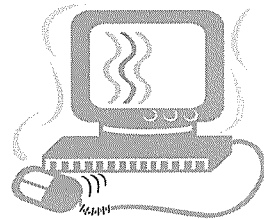
급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에서는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7월부터 새로운 도메인 발급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도메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인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국에 소재한 InterNIC에서 발급하는 도메인으로 com, org, gov 등으로 끝나는 도메인들이고, 또 하나는 각 국가에 소재한 국가별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국가명으로 끝나는 도메인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kr로 끝나는 도메인을 발급해 주고 있다. kr 도메인의 경우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음의 도메인들만이 발급되었다.

먼저 co.kr은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ac.kr은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go.kr은 국가기관, or.kr을 일반 사회단체가 발급대상이다.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않지만 seoul.kr, pusan.kr 등 지역 명을



이용한 도메인들도 있는데, 이는 오직 지방 자치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의 도메인은 metro.seoul.kr이다. 그런데 6월 30일을 기해서 이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pe.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e는 person의 약자로 개인에게 발급되는 도메인이다. 즉 개인 홈페이지의 주소를 pe.kr이라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주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30일부터 http://domain.nic.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pe.kr로 바꿀 것으로 예견된다. pe.kr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신청시 22,000원이 소요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pe.kr도메인이 발급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시에 꼭 명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도메인의 이름으로 kim.park등 성을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즉, kim.pe.kr, park.pe.kr은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7월부터 달라지는 것으로는 한개 기업이 여러 개의 co.kr 도메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하나의 도메인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며, 무료로 발급되던 도메인에 신청시 발급비와 연간 유지비가 부과된다.

co.kr도메인의 경우 매년 33,000원의 유지비를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내 도메인 발급체계에 변화가 생기게 됨에 따라 또 한번 도메인 선점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 두고 나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없이 선점만 해 둔 경우 폐소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든 알타비스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록만을 미리 해두고 주소를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려는 봉이김선달식의 돈벌이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실제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주소를 팔고 있는 사이트인 인터넷 봉이김선달(<http://www.bongikimsundal.co.kr>)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모씨가 미리 등록

을 해둔 koreaonline.net이라는 도메인의 경우 매도 희망 가격은 무려 5억원이다.

이외에도 quizkid.com이 5억원, foryoung.com도 5억원의 가격표가 붙어있다.

물론, 실제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워낙 매도 호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없이 가격만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선점되지 않은 주소로 기억하기 쉬운 것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선점해 둔 도메인을 구입하는 경우 돈을 주고 매입한 후에도 외국의 업체와 급작스런 소유권 법정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때에도 확실히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도메인이 사람들의 돈싸움에 말려들어가 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도메인은 틀림없는 인터넷의 자원이다. 그것도 무한정 만들 수 없는 아껴 써야 하는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을 모두가 나누어서 꼭 쓸 것만, 꼭 쓸만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터넷 현실이다.